

이 대통령, 강력한 개혁의지 천명... 실용적 접근도 강조

내란 수사 재판에 원칙론... "민주공화국 가치 타협 안돼" 지역 경제발전 관련 균형발전 정책 구상·집행 또 밝혀 만만찮은 외교 "미국 관세 협상 국익 반하는 결정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수사·재판 문제와 관련해 "원칙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도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을 밝히는 등 취임 30일 회견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균형발전 정책 구상과 집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합목적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각론에 접근하겠다는 실용적인 태도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곳곳에서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지난 10일 민주당이 마련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데 대해 "정부 조치를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며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대치 정국이 격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토대를 흔들지는 '내란'을 종식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야당 대표를 초청해 협치를 강조했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마지노선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으로,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설령 사법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취임 초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요 내용

부동산대책 관련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통제. 공급 실용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주식시장 활성도가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상속세 완화 관련
"일반적인 상속세 낮추는 것 등의 뜻에.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 완화는 이번엔 처리"

확장재정 기준 관련
"태양포인트에 대한 불기피한 조치. 부채가 씨앗 역할해 몇 배의 GDP 증가 가져올 것"

검찰 수사 기소 분리 후속 입법 관련
"구더기 실어장독 없애면 안돼. 보완수사권 논리적 치밀히 검토"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관련
"위헌이라는 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의 주권의 지지가 가장 중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관련
"정법적 손해배상, 언론만 타지 않아야. 유튜브에도 가짜뉴스. 누구든 악의적 가짜뉴스에는 배상 아주 크게"

남북관계 관련
"북한 태도 냉랭한 게 우리의 현실.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

한일관계 관련
"새 일 본 내각이 들어서도 투트랙 원칙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 규명할 것은 규명"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 관련
"이런 합의 없어. 국익에 반하는 결정 절대 안돼.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 안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나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와,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가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검찰·언론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한 만큼, 향후 보완수사권 등 각론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세밀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거나 "죄를 지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전문가와 여야는 물론 검찰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전달했다.

개혁과제 후속 입법 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 개하지 않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까지 고려해 개혁의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법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이 대통령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큰 의제도 아닌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고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정책은 전리가 아니기에 그런 건 (협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메이메이키' 역할을 예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어떤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150분 동안 총 22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초심을 강조하는 의미로 지난 광복절 국민인명식 때 착용했던 흰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은 낮 12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90분을 계획했으나 1시간을 초과 진행한 것이다. 받은 질문 수는 총 22개로,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받았던 질문(15개)에서 7개나 늘었다.

18번째 문답을 마치고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변인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소한 저녁 (회견) 숫자는 넘겨야 한다"며 추가 진행 의지를 보였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11일 오후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열린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참석자들이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시연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 전국 최대 인공지능 산업 허브로

AI 기업 유치 320개사 돌파...비전 선포식서 업무 협약 2단계사업 예타면제 확정...기업들 관심 높아져 광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시가 유치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이 320개사를 돌파했다.

특히 광주시는 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확정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AI 관련 기업들의 광주행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1일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에서 열린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에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기관·기업 21곳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광주시의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협력 기업은 총 320개사로 늘어났다.

광주시는 그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전문인재 양성, 기업 유치에 힘써,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기업 299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새로 참여한 21개 기업 대표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개 기관·기업은 ㈜가온칩스, ㈜아트랩, ㈜에이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 ㈜코아시아세미, ㈜하이퍼엑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네플라㈜, 뉴로랩, ㈜드로미, ㈜디밀리언, ㈜디엠티랩스, ㈜메타클라우드, ㈜메타플라이, ㈜시대의영웅, 아뮤즈8, ㈜아이티브에이아이, 에이블제이㈜, 클로로, ㈜프리아이디어, ㈜하이로컬 등이다.

이들 기관·기업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의 각자 전문영역을 기반으로

광주에서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 산학연 협력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광주 인공지능(AI)·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반도체업계 핵심기업과 인공지능(AI) 유망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AI와 반도체 산업이 맞물린 융합 생태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지역 산업의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21개 협약 기관·기업의 참여와 약속은 광주가 지향하는 '모두의 AI'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확정으로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광주시는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담장, 디자인에 취하다!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 ✓ 자연석같은 전통 사괴식문양 품격벽물
- ✓ 세계최초 한글조합식 문자블럭 '세종벽물'
- ✓ 조적, 몰탈 등 별도의 접착제 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키어블럭'
- ✓ 담장 조적 각종 건축인테리어블럭



중경벽돌세제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억형 담장



키어블럭 (조합식조적용) POT국제특허출원



체스블럭 담장



기어블럭

NAVER **뉴정원산업**

본사공장 전남 화순군 이양면 약포로862(동명리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